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 가시적 성과 드러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5월말 현재 5개 브랜드 통합인증 지정
통합인증 1호 브랜드, 브랜드 소속 HACCP인증업체(농장)와 매출액 증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HACCP 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관리통합인증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김진만)은 5월말 현재, 안전관리통합인증(이하 통합인증)을 받은 브랜드 업체가 5개소, 통합인증을 받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업체가 22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통합인증을 받은 5개 브랜드는 지난 해 7월 강원 평창 · 영월 · 정선축협의 '대관령한우(소고기)'가 1호로 인증된데 이어, 대형유통분야의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진생원인삼포크(돼지고기), 계림농장(계란), 그리고 최근에 인증받은 하림(닭고기)이다. 통합인증을 받은 5개 브랜드는 인증을 받기 전부터 인증원과 MOU를 체결하고, 현장 컨설팅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음으로써 생산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위생안전성을 통합관리하는 인증획득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인증을 도입한 지(2014.1.31)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우, 돼지, 닭, 계란 등 대부분의 축종(업종)과 전국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브랜드 경영체가 참여하는 등 통합인증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인증 1호인 강원 평창 · 영월 · 정선축협의 '대관령한우'를 대상으로 6월초 실시한 조사평가 결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농장과 식육판매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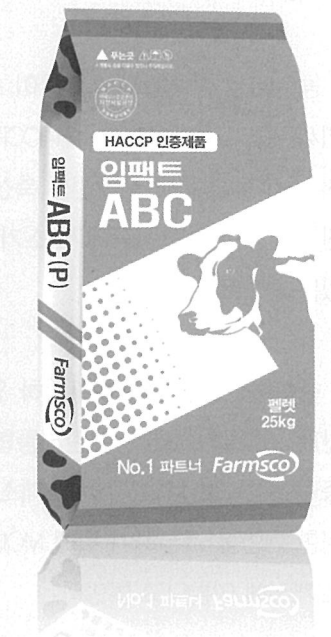
전예정 심사기획팀장은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부는 HACCP 인증업체수가 늘어나고 학교 급식 납품 증가, 매출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금년 10개 브랜드에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인증업체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팜스코

차별화된 신개념의 착유 신제품 "임팩트 ABC" 출시

㈜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는 낙농가들이 편리하고, 건강하게 착유할 수 있는 신개념의 착유 신제품 "임팩트 ABC"를 출시했다.



㈜팜스코는 지난 6월 17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영업 조직과 특약점 판매 조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 신제품 "임팩트 ABC" 소개회의를 가졌다. 임팩트 ABC는 "잘 먹고, 편리하고, 건강한 사료"를 모토로 출시된 제품으로 배합사료 내 고섬유소 기능의 원료를 첨가하여 젖소 반추위 소화 효율을 높이고, 급여방법을 단순화시켜 편리성을 극대화한 사료이다.

또한 "임팩트 ABC"는 고품질의 알팔파, 비트, 면실피 펠렛을 사료 안에 첨가하여, 펠렛 가공 시킨 신개념의 사료다. 아울러 착유우에 필요한 영양소의 종합 설계, 기능성 필수 미량물질 강화, 반추위내 최적의 pH조절 기술 등을 적용하여 낙농가의 생산성 개선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팜스코는 지난 3월, 송아지와 건유우 사료, 기능성 탑사료로 임팩트 큰송아지, 임팩트 건유우, 임팩트 탑, 임팩트 피크 등 4종의 낙농사료 임팩트 시리즈를 출시하여 낙농 기초 사료를 라인업 했고, 이번 "임팩트 ABC"를 출시하여 임팩트 시리즈 전 라인을 완성했다. 이번 임팩트 시리즈를 통해 낙농가들의 꿈인 '5산 6만㎏'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팜스코는 성공적인 필드 테스트와 최적의 생산 준비를 완료하여 신제품 출격의 준비를 마쳤다. 불안한 낙농가의 미래에 확실한 수익성을 안겨줄 수 있는 획기적인 신제품 "임팩트 ABC".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팜스코 축우팀의 내일이 기대된다.

선진 뉴보스 육성우와 함께라면 육성우 키가 쑥쑥!
정예 낙농의 첫 걸음 선진 뉴보스 육성우 출시

축산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지난 6월 20일 정예낙농을 위한 '선진과 6개월, 키 큰 정예 육성우' 뉴보스 육성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유 소비 감소와 유제품 수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낙농 농가들은 원유 감축 압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개선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낙농가에게는 정예 육성우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정예 육성우의 핵심적인 요소는 초산월령의 단축이고 이를 위해서는 육성우의 큰 체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부 생산성이 높은 목장에서는 이러한 핵심요소를 미리 알고 큰 체구의 육성우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선진 '뉴보스 육성우' 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탄생되었다. '뉴보스 육성우' 는 현재 28개월인(국내 검정농가 평균) 초산월령을 5개월 단축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육성우 사육두수를 적정 육성우 비율 수준으로 줄여 생산원가 경쟁력을 가지는데 목표를 두었다.

'뉴보스 육성우' 사료는 ▲뉴보스어린송아지 ▲뉴보스중송아지 ▲뉴보스큰송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보스체성장 지수 적용으로 성장단계에 맞는 최적의 영양소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초기 육성우(~6개월령)의 성장율을 최대로 올려 유선발달과 분만 시 체구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어린 송아지 급여 프로그램을 6개월까지 늘린 것이 큰 특징이다.